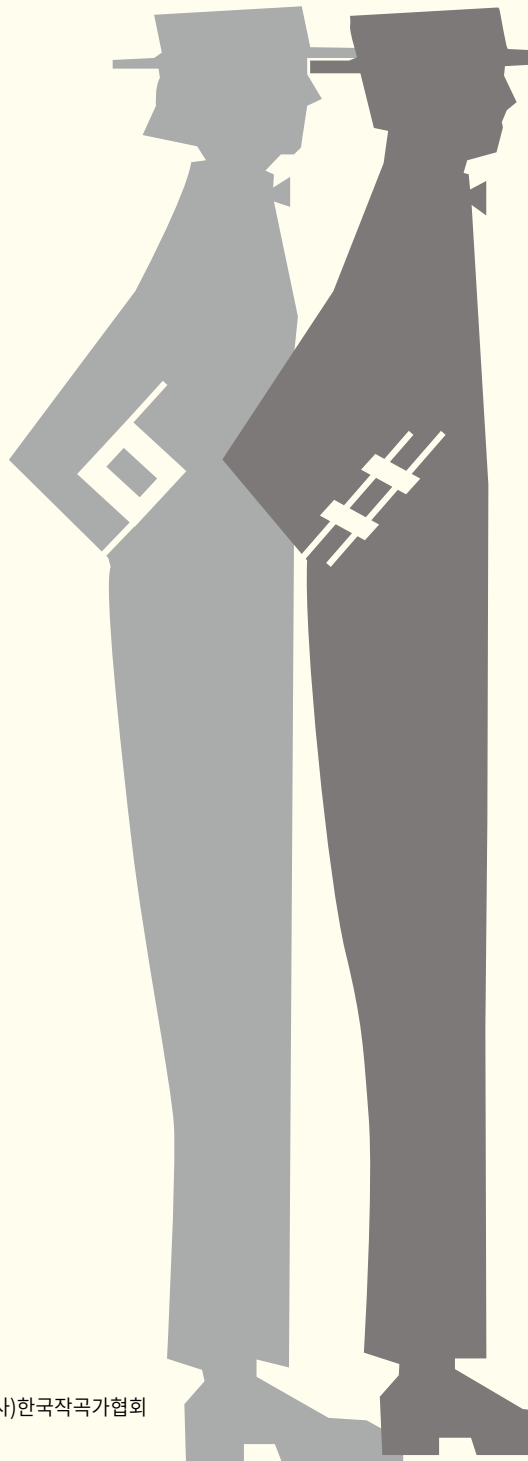


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작곡동인 소리목



제43회 정기연주회

# 에필로그 Epilogue

2022.11. 21 | 월 | 오후 7:30

일신홀

기획연주회

# 모놀로그 II Monologue II

2022.11. 22 | 화 | 오후 7:30

울하우스(도곡동)

주최 작곡동인 소리목 주관 현대문화 후원 KOCMA (사)한국작곡가협회

1989년 4월 창립한 작곡동인 <소리목>의 ‘소리’는 음악을 의미하며 ‘목’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말 ‘모꼬지’의 첫 발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작음악계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곡동인 소리목은 2016년부터 <책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삶의 파장과 동시대의 시대성이 반영된 문학작품을 소재로 하여 순수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며 높은 예술적 성취도를 이루어 왔습니다.

소리목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플랫폼을 고민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을 지원하는 의미로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기연주회와 별도로 기획연주회를 구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동안 정기연주회로는 <에필로그(Epilogue)>와 기획연주회로는 <모놀로그 II (Monologue II)>를 준비합니다. ‘에필로그’는 문학에서는 시, 소설, 연극 등에서 끝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끝나는 것은 그동안을 정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혜리의 ‘가면’, 백자영의 ‘멜로 리듬’, 유도원의 ‘자아영역’은 인간의 현실 삶 속에서의 관계와 설정의 교체, 자아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의 ‘운용’, 이재홍의 ‘어두운 숲’은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예술의 힘’과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통해 음악의 물리적인 본질이 아닌 지각되는 객체로서의 소리와 두려움에 대해 집중합니다. 서유라의 ‘그리다’, 박창수의 ‘우울한 타겟’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 주는 그리움 그리고 인생에서의 그러한 아픔과 극복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연주회로는 그동안 <4인의 작곡가>, <예언자 2018>, <예언자-청춘>, <아빠, 이중섭>, <모놀로그> 등의 음악회를 통해 작품을 소개해 왔습니다. 올해 <모놀로그 II>는 윤은혜의 ‘잔혹동화’, 강소정의 ‘수선화에게’, 장대훈의 ‘pi’, 이은미의 ‘바람에 뒤척이는 모란도’, 류경선의 ‘상상’ 등의 신작을 소개합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작곡가들의 고민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리목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 청중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작곡가 분들 그리고 연주에 헌신을 다해주신 연주자 분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현대문화기획 관계자 분들과 음악회를 더욱 뜻 깊게 준비해 주신 소리목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곡동인 『소리목』 회원 일동

**에필로그 (epilogue)** 「명사」 시가, 소설, 연극 따위의 끝나는 부분.

**모놀로그 (monologue)** 「명사」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췌

PROGRAM

**강혜리** 피아노 솔로를 위한 <가면> (2022)  
*A Mask for Pianoforte*

Pf. 이종은

**백자영** 봉고와 바이올린을 위한 <멜로리듬> (2022)  
*Melorhythm for Bongo and Violin*

Vn. 박신혜 / Perc. 이서림

**박은경** 피아노 독주를 위한 <운용> (2022)  
*Practical Range for Piano Solo*

Pf. 이은지

**서유라**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그리다> (2022)  
*Greed a for Clarinet, Violin and Piano*

Cl. 홍성수 / Vn. 박재린 / Pf. 김아름

- Intermission -

**유도원**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자아영역> (2022)  
*Egoscape for Piano Solo*

Pf. 정민정

**이재홍**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어두운 숲> (2022)  
*Dark Forest for Bassoon and Piano*

Bsn. 황의원 / Pf. 김영진

**박창수** 피아노+ 를 위한 <우울한 타겟> (2022)  
*Gloomy Target for Piano+*

Pf. 박창수

**강혜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YAF 1기 선정, 중앙음악콩쿨 2위, 난파전국음악콩쿨 대상, ACL-Korea 신인콩쿨 대상 수상
- 서울음악제, 범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및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일본, 대만 등 다수 음악제에서 위촉 및 작품 발표
- 강혜리 작곡발표회 “이상한 화요일”, “타악기로 그리는 나무, 시간이 흐르는 풍경” 개최
-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서경대학교 강사 역임, AYAF Ensemble 작곡가, 소리목 회원

피아노 솔로를 위한 <가면> (2022)

*A Mask for Pianoforte*

작곡가로, 직업인으로, 엄마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관계를 맺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의 연속이다. 길은 고민의 순환이다. “가치”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해야 할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늘 끊임없이 깊은 생각으로 이끈다. 작곡가로서 이러한 질문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수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종종 대답 없는 공허한 울림과도 같을 때가 많았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 같은 근원적인 질문의 끝에 결국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대, 지금 행복한가?!”... 나를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며 나의 존재와 행복 그리고 가치와 영감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며 비로소 작은 시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 음을 오선 위에 덩그러니 그려 놓으며 삶의 “가면”을 바꾸어 써본다. 여러 가지 역할의 여러 모양의 가면을 신속히, 자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묵묵히 삶을 빛어간다. 울통불통! 실수와 고된 길의 연속이지만 중단할 수 없는, 그러나 곳곳의 아름답고 찬란하게 반짝이며 빛나는 감동의 순간, 작은 희망의 새싹 속에서 오늘도 이 가면을 기꺼이 바꾸어 쓰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힘을 다시 내어본다. 작곡가 본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스승 이강울의 모티브를 차용하여 악곡 중간에 넣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위로의 인사와 같은 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가로서의 삶의 여정을 차분하고 깊게 들여다보는 작은 섬표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봉고와 바이올린을 위한 〈멜로 리듬〉 (2022)

*Melorhythm for Bongo and Violin*

‘melorhythm’은 ‘melody’와 ‘rhythm’의 합성어로 리듬 악기가 멜로디를, 멜로디 악기가 리듬을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리듬 악기인 ‘봉고’와 멜로디 악기인 ‘바이올린’을 선택하게 되었고, 각각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서로 바꾸어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작품의 도입부는 봉고의 ‘리듬’으로 시작되지만, 이 리듬을 ‘멜로디’라고 상상하며 작곡하였고, 이 ‘멜로디’는 작품 전반에 걸쳐 두 개의 악기에 의해 등장한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 두 악기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 봉고는 다시 리듬을 바이올린은 멜로디를 연주하며 마무리된다.



백자영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 수료
-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대학 석사 졸업 및 postgraduate과정 이수
- 오스트리아 유덴부르크시 아티스트레지던스 선정
- 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강

피아노 독주를 위한 〈운용〉 (2022)

*Practical Range for Piano Solo*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그의 저서 <예술의 힘>에서 우리는 태양의 자기장 안에 있을 뿐, 태양을 보거나 지각하는 것이 아니며, 화가들이 그려내는 빛은 태양이 아닌 우리가 태양을 지각하는 방식이라고 썼다. 음악의 물리적인 본질이 아닌 지각되는 객체로서의 소리를 담아보고자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의 가용성을 중심에 두고, 즉물적인 감각 혹은 지각하는 방식으로서의 소리를 정의하여 소리가 가지는 질감과 색채, 음향의 양감 등을 다채롭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히 총합체적 성격의 음향보다 개별적인 요소의 결과로서의 소리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추출된 각각의 소리 자체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박은경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B.A.) 및 동 대학원 작곡과 석사(M.A.)
-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Boulogne-Billancourt(DEM:작곡)
-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Départemental de Créteil(CFEM:작곡기법)
- Takef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대구 국제음악제, ACL Korea, Pan Music Festival, Mise-en Festival NY, NeoArte Poland 등 국내외 다수의 음악제 참가 및 작품 발표
- 현) 작곡동인 소리목, 창악회 임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출강

### 서유라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ACL-Korea 신인콩쿨 우수상
-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젊은 작곡가 공모, 화음 프로젝트 아카데미 공모 선정
- 현)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출강

### 유도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 석사 졸업 및 전자음악과정 이수
- 영국 런던대학교(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연구석사 졸업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콘체르트엑자멘 졸업
-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조교수

####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그리다> (2022)

##### *Greda for Clarinet, Violin and Piano*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이별 앞에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움이라는 세 글자의 단어,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다”라는 말을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직접 느끼며 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곡의 제목인 <그리다>는 그리운 마음과, 그리움 안에 살고 있는 나를 그려보는 것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영문 제목으로는 발음대로 greda로 표기하고 시작과 끝에 위치한 글자 g와 a를 음이름으로 연결시켜 곡의 주요 음정을 구성하였으며 멀리 있는 두 글자지만 가까이 있는 두 음처럼, 항상 곁에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 집중해 보았다. 또한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인용하여 내 마음을 오롯이 풀어보고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리움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감정의 단편들을 음악 안에 담아보고자 하였다.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려본다.

####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자아영역> (2022)

##### *Egoscape for Piano Solo*

예술가들은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신세계 심층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자아(Ego)’를 작품으로 발현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작곡가들은 소리라는 매개체로 내부에 고립된 ‘자아(Ego)’를 외부와 상호인식이 가능하게 한다. 이 작품은 ‘자아(Ego)’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질문, 즉 존재의 탐구에 대한 표현을 위해 작곡되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  
사고와 상념들이 떠오르고 사라진다.  
사라진 공간 위에 또 다른 상념이 피어오른다.  
“끊임없는 사고의 연속체...”  
이것이 “자아(Ego)”인가?

※ 이 작품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어두운 숲〉 (2022)

Dark Forest for Bassoon and Piano

우리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 제 1곡 -

곡의 제목은 여기서 취해졌다. 어두운 숲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로 무사히 지옥을 지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곡의 감정과 구조는 이러한 내용을 따라가도록 의도되었다. 피아노 및 바순의 어두운 음색은 어두운 숲과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약 5분 뒤에 나타나는 오스티나토 부분은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상징한다.

이재홍

- 선화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미국 Queens College of CUNY 석사
- 영국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박사
- (현)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및 아시아작곡가연맹 이사
- 창악회, 21세기악회, 작곡동인 소리목, ISCM-Korea 등에서 주로 작품 활동

피아노+ 를 위한 〈우울한 타겟〉 (2022)

Gloomy Target for Piano+

누구에게나 아픔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일 것이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에게 맞게 무대로 옮겨지길 희망한다.

오늘 연주하는 음악은 즉흥연주로, 악보에 표기된 음을 연주하는 것과 달리 최소한의 아우트라인 없이 완전한 즉흥으로 연주하는, 작곡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음악이다. 연주자의 내면세계가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연주하는 이의 마음과 음악성이 매우 확실하게 전해진다.

이번 역시 그 현장, 그 시간 속에서 순간을 노래한다. 그것이 박창수라는 광대가 해야 할 일이다.

박창수

- Music Performer, Improviser
-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 제7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서양음악 부문) 수상, 제1회 신일문화재단 연성히어로 특별상 수상
- 음반 Infinite Finitude 발매
- 김영희무트댄스 음악감독 역임
- (현) The House Concert 대표



**이종은 | Piano**

-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 아이슬러”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세종문화회관 귀국독주회, 예술의 전당 IBK홀 독주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등 다수 연주
- 독일대 겸임교수 역임
- 현) 대전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 출강, 다수의 음원 및 음반 발매, 음악실연자연합회 대의원, IPL 앙상블 예술감독, 제이 트리오 단원, 선화 피아노 소사이어티 회원, 한우리오페라예술단 피아니스트



**박신혜 | Violin**

-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 졸업
-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 장학생, 독일 자브리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Walter-Gieseking 콩쿨 실내악부문 1위
- 현)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차석, 선화예술학교 출강, 현대음악앙상블 위로 멤버, 현대음악앙상블 오엔 멤버



**이서림 | Percussion**

- 독일 뉘른 국립음대 학· 석사 졸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Ensemble Resonanz, Klangforum Wien, TIMF 앙상블, 앙상블 블랭크, 소리퍼커션 등 다수 실내악 객원 연주
-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 Impuls 현대음악 페스티벌 등 다수 국제 음악제 참여
- 프라이부르크 필하모니 협연
- Enno Poppe, Dieter Mack 등 유수 작곡가들의 작품 초연



**이은지 | Piano**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불
- 파리국립고등음악원(CNSM de Paris) 학사, 석사과정 및 실내악과정 만장일치 입학 및 졸업
- 이화여대 박사과정 졸업
- 서울시향, 군산시향, 서초필하모니오케스트라 협연, 금호영아티스트
- 현) 이화여대 출강, 현대음악전문앙상블 위로, 서울모던앙상블, 앙상블 유니송, 서초필하모니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홍성수 | Clarinet**

-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Ecole normale musique de paris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Ecole nationale musique creteil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Ecole nationale musique d'evry 졸업
- Euroeen picardi concours 입상
- 현) 서울모던앙상블,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린트리오 멤버, 안양 윈드오케스트라 악장, 아르누보 클라리넷앙상블 악장, 강원대 출강



**박재린 | Violin**

- 예원, 서울예고, 연세대 음대, 독일 쾰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석사 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박사 수료
- 고양필 오케스트라 객원악장 및 금천교향악단 악장, 서울예대 외래교수, 전북대, 목원대 강사 역임
- 현) 상명대, 송실대, 인천여중, 인천예술영재교육원, 인천청소년오케스트라 출강, 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리움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리벤토 현악사중주, 로드 앙상블, 앙상블 칸탄도 멤버, 린트리오 리더



**김아름 | Piano**

- 서울대학교 학사, 독일 Würzburg 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Essen Folkwang 예술대학 성악 반주과 졸업
- 삼익 콩쿨, 독일 'Wolfgang Fischer und Maria Fischer-Flach Stiftung' 실내악 콩쿨 입상
- 군산시향, 마제스틱 청소년 오케스트라 협연
- 현) 강원대, 협성대, 선화예고 출강, 앙상블 비트윈, 린트리오 멤버



**정민정 | Piano**

- 예원, 서울예고 졸업
- 서울대학교 실기수석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Konzertexamen 졸업
- KBS 신인음악콩쿨 은상, 스크리아빈 국제콩쿨, 파두아 국제콩쿨 등 우승 및 상위 입상
- 현) 미국 조지아센트럴대학교(Georgia Central University) 피아노전공 조교수, 서울대, 세종대, 전남대, 한세대, 예원, 서울예고 출강, TIMF앙상블 단원



**황의원 | Bassoon**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Master(석사) 졸업, Kammermusik(실내악과정), Advanced Studies 수료
- 서울대 관악콩쿠르, 우현음악콩쿠르 1위, 경원대 관악콩쿠르 목관부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 Bach Collegium Stuttgart 객원단원, Südwestdeutsche Philharmonie Konstanz 수석, KBS교향악단, 청주시향 객원수석,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수석, 건국대학교 강사 역임
- 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 채리티체임버앙상블, 분더바순, 앙상블 마데라 멤버,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



**김영진 | Piano**

-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수석졸업
-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Hanns-Eisler 피아노과 Diplom 졸업
- 독일 자브리켄 국립음대 Aufbaustudium 현대음악 최고점수 졸업
-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강사 역임
- 현) 덕원예술고등학교 출강



**박창수 | Piano**

- Music Performer, Improviser
-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 제7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서양음악 부문) 수상, 제1회 신일문화재단 언성히어로 특별상 수상
- 음반 Infinite Finitude 발매
- 김영희무트댄스 음악감독 역임
- 현) The House Concert 대표

## PROGRAM

- 윤은혜** 더블베이스 독주를 위한 <잔혹동화> (2022)  
*A cruel fairy tale for Double Bass Solo*  
D.B. 유이삭
- 강소정** 바리톤과 피아노를 위한 <수선화에게> (2022)  
*To the daffodils for Baritone and Piano*  
시. 정호승  
Bar. 이원섭 / Pf. 김미성
- 장대훈** 첼로 독주를 위한 <Pi> (2012 / 2022 개작)  
*Pi for Cello Solo*  
Vc. 윤석우
- 이은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바람에 뒤척이는 모란도> (2022)  
*Peonies in tossed wind for Violin and Piano*  
Vn. 류경주 / Pf. 강은하
- 류경선**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상상(想像)> (2022)  
*Imagine for Clarinet Solo*  
Cl. 김민욱

## 더블베이스 독주를 위한 <잔혹동화> (2022)

### *A cruel fairy tale for Double Bass Solo*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던 왕자와 공주가 등장하는 동화는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회의 관습과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곡은 제목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존에 당연히 여겨졌으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낡은 관습과 관념들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움직임의 담은 곡이다. 동화 속에서 모든 관습들을 제거한다면 과연 그 안의 등장인물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 곡은 “순수하고 정제된” 소리 뒤에 숨어있던, 존재하였으나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에 관한 곡이다.

## 윤은혜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인디애나대학교 석사, 보스톤대학교 박사
- 아창제 양악 부분, TimeArt Academy,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서울음악제, 피아노두오협회 작곡 콩쿨 등 당선 및 연주
-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전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치용 지휘), Mivos Quartet, Sound Icon, Ensemble Blank, Risus Quartet 등 협업
- 보스톤대학교 강사 역임
- 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바리톤과 피아노를 위한 <수선화에게> (2022)

To the daffodils for Baritone and Piano

시. 정호승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시는 첫구절부터 나를 아프게 때렸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외로운 존재가 된다는  
 어찌면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마음을 꼭꼭 눌러가며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다.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외롭지만 견뎌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주체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구절이 냉정하나마 위로가 되었다.

이제는 조금씩 옆을 돌아보련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느라 더 외로움이 짙어져가는  
 모든 수선화들에게 주는 시인의 메시지가 아닐런지...

강소정

- 선화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작곡동인 소리목, 하나님의 작곡가들에서 작품 발표
- 현) 가천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원대학교, 호서대학교 출강

첼로 독주를 위한 <Pi> (2022)

Pi for Cello Solo

이 곡은 원주율(Pi Number)에 일정한 기법을 적용해 만든 곡이다. 10년 전, 바쁘게 돌아가던 박사과정, 곡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고, 이론과목 수강으로 어느때보다 음렬음악에 날이 서있던 시기, 숫자를 사용해 곡을 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꺼란 생각과 내가 가진 틀을 벗어나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쓴 작품이다.

3.14159265358979323846264338327950...  
 패턴 없이 무한이 이어지는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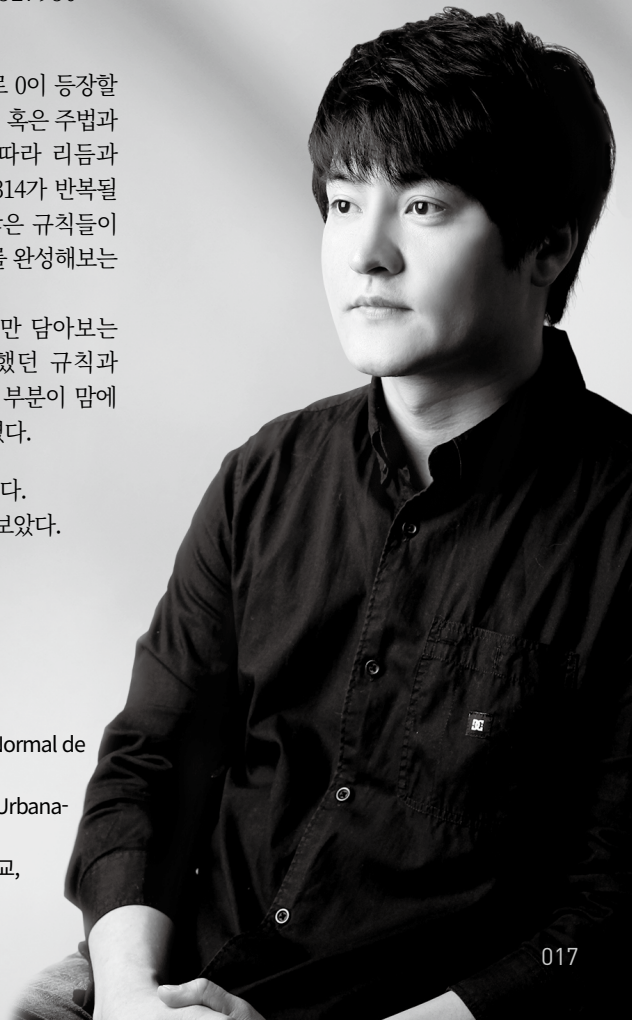
숫자를 음으로 변환하는 방식은 총 5개로 0이 등장할 때마다 적용 방식이 바뀐다. 음이나 음정, 혹은 주법과 음색으로 적용되며 0의 출현 빈도에 따라 리듬과 강도 등이 결정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314가 반복될 때 끝난다. 이외에 기억도 나지 않는 많은 규칙들이 있었고 2012년 초연목표는 이 프로세스를 완성해보는 것이었다.

이번 2022년 개작 목표는 원하는 소리만 담아보는 것이다. 곡의 1/3을 덜어냈다. 중요했던 규칙과 프로세스들은 모두 무시되었고 오직 이 부분이 맘에 드는가 안드는가만 묻고 잘라내고 덧붙였다.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결정이 곧 규칙이다.  
 작곡가로서 악보에게 철저한 '감질'을 해보았다.

장대훈

- 국민대학교 작곡과 학사
-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드 뮤직(Ecole Normal de Musique) 작곡 고등 디플롬
-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작곡 박사 취득(D.M.A.)
- 현)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가천대학교 출강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바람에 뒤척이는 모란도〉 (2022)

*Peonies in tossed wind for Violin and Piano*

작자 미상의 민화 <모란괴석도>의 그림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란꽃과 바람에 잠시 꽃잎 속으로 숨어버린 나비, 그리고 바람 앞에서 의연한 바위가 등장한다. 이들 세 존재의 초상이기도 한 그림을 보면서 느낀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표현해본다. 4도와 2도 음정을 중심으로 국악적 선율과 리듬을 모방과 대조를 통해 전개한다.

이은미

-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 박사학위 취득(Ph. D.)
- 한국여성작곡가회, 창악회, 21세기악회, ISCM, 작곡동인 소리목 회원
-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 이사 및 총신창작음악학회 부회장
- 현) 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출강



류경선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작곡전공 학사 · 석사 · 박사 졸업(B.M., M.M., D.M.A.)
- 고려대, 국민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장신대, 추계예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강사 및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현)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 창악회 감사, ISCM, ACL, 21세기악회, 동서악회, 베리타스뮤지케, 소리목, 신음악회, 여성작곡가회, 운지회 회원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상상(想像)〉 (2022)

*Imagine for Clarinet Solo*

작곡가들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는 초안 방법의 하나인 상상(想像). 구상된 음악의 표현을 위하여 편성을 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으로 결정한 편성 그 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이번 소리목 기획연주회를 위하여 편성을 무반주 클라리넷 독주로 결정하고 모처럼 클라리넷 악기 자체가 지닌 음색과 특징, 전통적·현대적 연주 방법 등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단계에서 자유로이 떠오른 다양한 상상들을 클라리넷 독주로 구현 가능한 주법들을 활용하여 표현해보았다.



**유이삭 | Double Bass**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The Juilliard School 석사
- Indiana University 오케스트라 연주자과정
- 코리안첼버오케스트라 정단원, 앙상블블랭크 멤버
-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 천안시향, 포항시향 객원수석



**이원섭 | Baritone**

-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 국립합창단 준단원 역임
- 다수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연주
- 현) 전주시립합창단 단원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김미성 | Piano**

- 선화예술학교 음악부 전체 수석 및 선화예고 졸업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 석사 졸업
- 미국 텍사스 주립대 석사과정 졸업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미국 미시간 주립대 박사과정 졸업
- 현) 한국교원대, 평택대, 이화여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출강



**윤석우 | Violoncello**

- 프랑스 리옹국립고등음악원(CNSM de Lyon) 학사 및 석사 졸업
-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 de Paris) 실내악과정 졸업
- 프랑스 블로뉴 시립음악원(CRR de Boulogne)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현)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앙상블 위로 멤버



**류경주 | Violin**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불
-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최우수 만장일치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음협콩쿨, 음악저널, 한국일보콩쿨 1등, 오사카 국제콩쿨, 런던 Grand Prize Virtuoso 국제콩쿨, Emuse 국제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TIMF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 전액 장학생 참가 및 연주, 진주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협연, 서울 스프링페스티벌 후원의 날 연주, 앙상블 유니송 Paris 초청 연주,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연주 등 다수 연주
- 현) Verno 트리오, 가일 플레이어즈, 서울 솔로이스츠, 앙상블 누벨바그, 앙상블 유니송 단원



**강은하 | Piano**

- 경희대 음대 졸업
-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우수과정(Konzert examen) 졸업
- 서울 심포니와 협연, 쇼팽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노문헌 연구회 정기연주회 및 다수의 독주회
- 전주세계소리축제, 팬뮤직페스티벌, 서울 국제 컴퓨터음악제, 스페인 발렌시아, 타라고나, 프랑스 현대음악제 초청연주 등 다수의 실내악 연주
- 경희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백제예술대, 성결대, 숙명 페다고지대학원, 연세대, 원광대, 경기예고, 인천예고 강사 역임
- 현) 덕원예고 출강, 앙상블 클라모레 대표,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단원으로 활동 중



**김민욱 | Clarinet**

-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쾰른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Saverio Mercadante” 국제콩쿨 본선 진출
- 독일 Bergischer Orchestra 단원 역임 및 강남심포니, 청주시향 객원수석
- 현) 모모앙상블, Ensemble Eins 단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연 단원

명예고문 故 김용진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 문 최승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임회장 故 김용진 최승준 길일섭 조인선 김기범 안종덕

현 임원 명단

회장 윤승현  
총무 유도원 박은경  
연구 강혜리 한경진 장대훈  
연주 김범기 이재홍  
회계 서유라 백자영  
홍보 김수혜 김윤진 홍윤경 최창석  
후원 강소정

회원

강소정 강혜리 고영신 길일섭 김기범 김동수 김범기 김수혜 김승림 김시형 김윤진 김정훈 김진호  
김현기 류경선 리치천 마도원 박은경 박은하 박정은 박창수 백자영 서유라 신동일 신혜승 안종덕  
양문희 유도원 윤승현 윤은혜 이애련 이용희 이원숙 이은미 이재홍 이진우 이현주 이해란 임영미  
장대훈 장덕산 정미선 조석희 조인선 조창제 최소영 최승준 최진화 최창석 팀스마이클 한경진  
허영한 홍윤경 황성곤



홈페이지



Youtube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http://www.sorimok.org>  
[sorimok\\_org@naver.com](mailto:sorimok_org@naver.com)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연 및 후원문의  
총무 유도원 [accompano@hanmail.net](mailto:accompano@hanmail.net) / 010-7638-1052

후원 계좌  
국민 804802-00-071594 예금주: 서유라(소리목)



Epilogue  
+  
Monologue II